

소그룹 교재 | 막 10:13-16 | 주님, 저는 어떤 부모인가요?

2026년 5월 3일 주일설교 나눔

소그룹교재 셀모임나눔지 어떤부모 자녀양육 부모

말씀 읽기

[막 10:13-16]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말씀 속으로

오늘 본문에는 세 유형의 어른이 등장합니다. 아이들을 가로막는 제자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부모들, 그리고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세 유형은 곧 우리 안에 있는 세 가지 부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눔 질문

1. 마음 열기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혹은 어른)이 나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한 가지 장면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2. 첫 번째 부모 — 가로막는 부모 (13절)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쁘시다, 아이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이들을 가로막았습니다.

- 오늘날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가로막는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리적인 방해(예배 결석 등)와 심리적인 방해(교회 비판, 목회자 판단 등)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 "중요한 게 있으면 예배 같은 건 빠져도 된다"는 메시지를 아이가 배운다면,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될까요?

3. 두 번째 부모 — 밀어주는 부모 (13절 전반, 16절)

본문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 주시길" 바라며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안아 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 16절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행동(안아 주심, 안수하심, 축복하심)은 각각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밀어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4. 세 번째 부모 — 아이를 통해 배우는 부모 (15절)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아이들의 겸손, 진실, 순수, 열정 중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녀(혹은 주변의 아이)를 통해 내 신앙이 도전받거나 회복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5. 삶으로 한 걸음

설교 말씀 중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성공의 사다리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라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 이번 한 주간, 자녀(혹은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결단하고 실천할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함께 기도

1. 내가 자녀의 신앙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김 받고, 안수 받고, 축복 받는 세대로 자라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3.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순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회복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막 10: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